전남도 '숲가꾸기 사업' 효과 톡톡

올 3만4천ha에 729억원 투입, 나무은행 등 추진

운주사 주변 산불 확산 막고 칡뿌리·톱밥 부산물도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전남지역 '숲가꾸기' 사업으로 나무 성장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각종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는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6-2010)에 따라 산림자원화지원단을 조직해 올해 3만4천ha에 729억원을 투입, 나무은행 설치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화순군 운주사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칫 대형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으나 숲가꾸기 사업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아 귀중한 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칡뿌리 26t을 가공업체에 판매해 1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칡줄기 277t은 축산농가에 공급해 사료값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 베어낸 나무줄기 등 숲가꾸기 산물 6만㎥를 도내 343농가에 톱밥 등 부산물로 가공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화목용 등으로 활용했으며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 1만5천그루는 가로수나 공원 조경용으로 활용했다.

전남도는 올해 송광사를 비롯한 도내 사찰·향교 등 목조 문화재 81곳의 주변 산림 1천619ha에 대해 대대적인 숲가꾸기를 하고 나무 생장을 방해하는 조림지 칡덩굴도 조속히 제거키로 했다.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 전문가와 NGO(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 추진실태 평가단도 구성해 외부평가를 강화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합동 추진실태를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숲가꾸기 작업을 솎아베기→산물수집→톱밥제조 생산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며 "사업효과가 좋은 만큼 내년 사업을 위해 국고 494억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죽향 담양군 '1일 명예 읍·면장제' 호응

재경 향우 애향심 고취

적극적 군정 참여 유도

담양군이 재경 향우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일 명예 읍·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1일 읍·면장으로 위촉된 재경 향우회원들은 지난 26일 군청에서 명예 읍·면장 위촉패를 받고 12개 읍·면사무소에서 현안사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우시설 방문을 비롯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또 영농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사항 등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사회단체장과 마을이장간 간담회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판촉 방안 등도 논의했다.

담양군은 재경 향우회원들을 고향발전에 유도하기 위해 '1일 명예 읍·면장제'를 분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며 근무소감을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나주 반남면 일대 대대적 정비

농촌公 나주지사, 19억 들여 농지정지·용배수로 신설

기존 용배수로 시설이 낙후되는 등 경작여건이 원활하지 않았던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대 농지가 대구획정비사업을 추진, 농민들이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는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대 77ha에 대해서 19억여원을 들여 대구획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남3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10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나주지사는 사업착수전 개인별 맞춤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사용 일시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구획정비사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세부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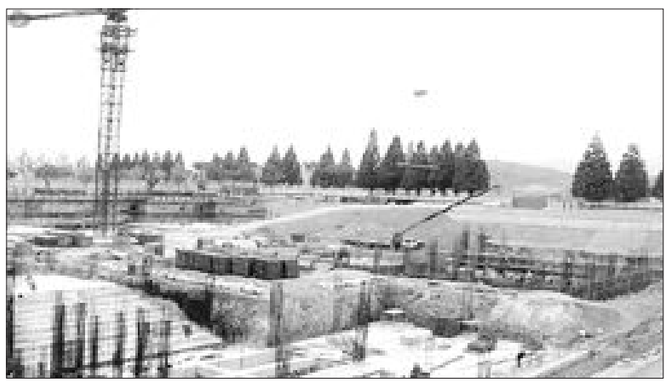
오는 200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이번 사업은 농지정지 106필지(64.42ha), 용수로 17조 6천486m, 배수로 20조 5천802m를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기계화 경작을 위해 새롭게 도로를 개설(1만998m)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된다.

임유식 농촌공사 나주지사장은 "이번 대구획정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급·배수로를 확보하게 되는 등 기계화 영농이 월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순조



내년 8월 준공될 화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29일 현재 공정률 12%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330억원을 들여 화순읍 대리 512-1번지 공설운동장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지고 있는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는 공연장과 전시실, 체육관, 교육장, 차량 17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된다. 〈화순군 제공〉

"민원처리 지연시 실비 보상합니다"

1시간 늦어질때마다 5천원

영광군 '지연보상 조례' 제정

영광군이 민원 처리가 늦거나 잘못되었을 때 실비로 보상한다.

영광군은 최대 3만원까지 민원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의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조례'를 전남 지역 최초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법으로 정해진 민원 처리 기간이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축 처리하기로 정한 248가지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처리됐을 때 실비 보상이 가능케 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3시간 이내 처리하게 돼 있는 창구 민원은 1시간 늦어질 때마다 5천원씩 지급해야 한다.

또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은 하루 지연되면 1만원이 지급되고 1일 5천원씩 추가 지급된다.

또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로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해 민원인이 관청을 2차례 이상 방문했을 경우 거리에 따라 5천~2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곡성 옥과농협 '종합경제사업소' 준공

하나로마트·영농자재 백화점·문화센터 등 갖춰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최근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인 대형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백화점 등을 갖춘 '종합경제사업소 준공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문을 연 경제사업소에는 부지 8천190㎡(2천482평) 규모에 하나로마트 1천321㎡(400평), 영농자재 백화점 215㎡(65평), 문화센터 215㎡(65평) 등이 들어섰다.

또 89㎡(27평)의 주유소는 전남지역 11번째 클린 주유소로 25만ℓ 리터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으며, 최신 자동세차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 농업인과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박상철 조합장은 "영농상담에서부터 각종 자재구입 등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환경을 구축, 모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고흥읍 등 5곳 '소도읍 육성' 후보지 선정

전남도, 행안부에 추천

전남도가 올해 신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고흥군 고흥읍 등 도내 읍지역 5곳을 선정, 행정안전부에 추천했다.

신청지역은 고흥읍과 장흥군 관산읍, 장성군 장성읍, 진도군 진도읍, 신안군 지도읍 등이다.

행안부는 각 시도에서 전국 30곳을 추천받아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이 중 20곳을 소도읍 육성사업 예정지로 최종 선정한다.

소도읍 육성지역으로 뽑히면 앞으로 4년간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재래시장 활성화, 중심 시가지 정비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소도읍 육성 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도하고 추천대상 5곳의 제안서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언까지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꽃무릇 축제' 현장 찾아 특산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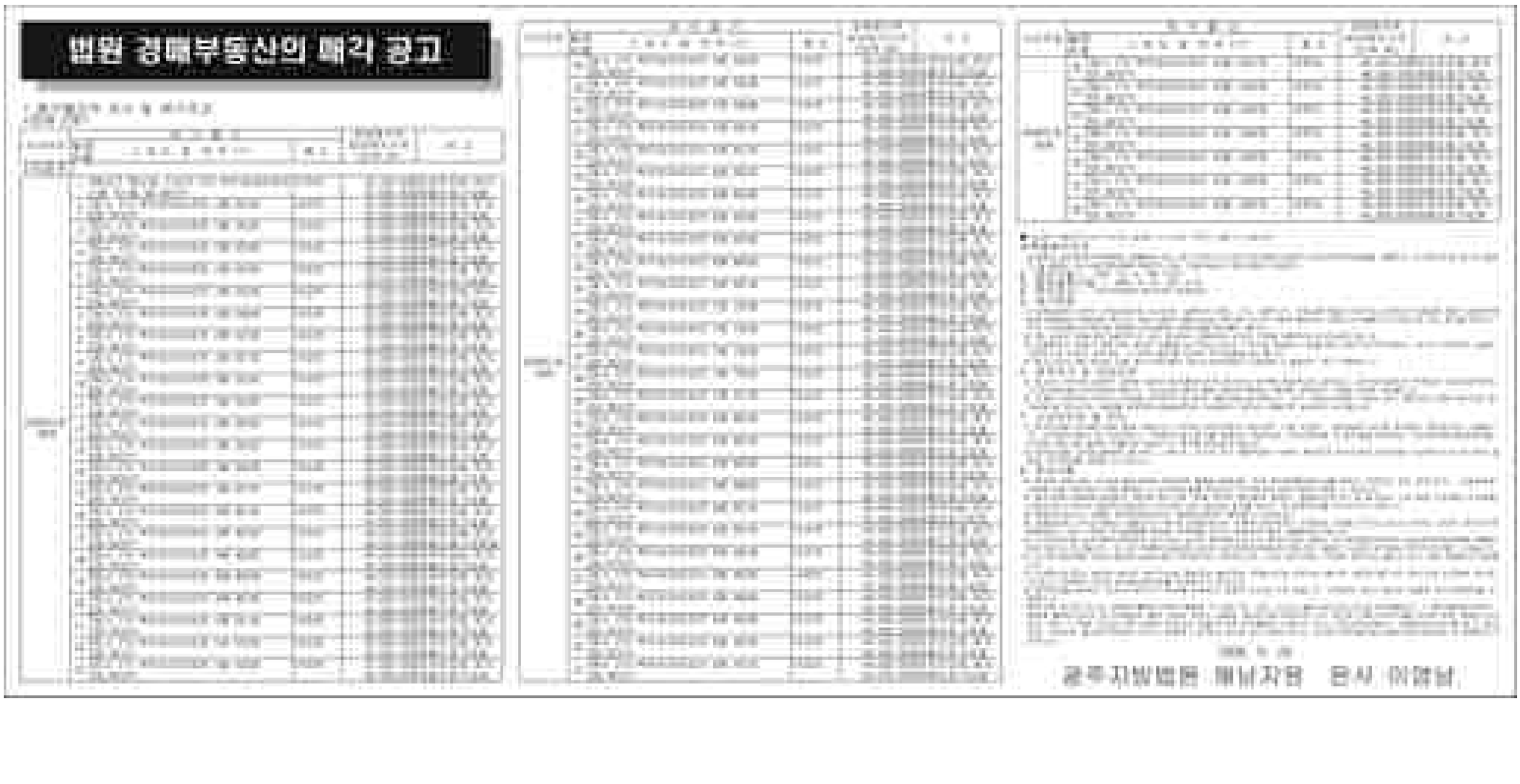
함평 모평권역 주민들

마을 홍보 적극 나서

함평 모평권역 주민들이 마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평 모평권역 4개 마을 부녀회와 운영위원회는 공동으로 최근 열린 용천사 꽃무릇 축제장에서 볶은 참깨, 해바라기 씨앗, 누에환, 뽕잎 차 등을 판매해 2천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마을 주민들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모평권역의 사계절 풍경과 체험거리, 일상 생활 등을 담은 사진도 전시했다.

이명숙 모평권역 사무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간 화합을 강화하고 많은 관광객에게 모평권역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